

그  
 려  
 게  
 살  
 아  
 으  
 면  
 종  
 겠  
 다

전나무는  
 포플러처럼 아름답지 못해도  
 겨울에도 푸른 잎을 간직하니  
 키 작은 전나무로 늘 푸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먼 바다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  
 넓고 깊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속삭이며 독보다 낮게  
 겸허히 흐르는 강물로 살았으면 좋겠다

홍수가 들어도 넘치지 않는 겸손과  
 가뭄 들어도 부족함 없는 여유로  
 햇살과 바람 더불어 물결 춤추는  
 맑고 푸른 바다로 살았으면 좋겠다.

욕망의 과잉 죽이고 커지는 것을 꿈꾸지 않고  
 높아지는 것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작게  
 그렇게 낮게  
 그렇게 맑고 푸르게

- 시우미

**시우미**

등단 시 2009년 <조선문학>, 수필 2008년 <조선문학>

작품집 시집 '삶의 무늬', 수필집 '겨울나무'

수상 파블로 네루다 탄신105주년기념 수필부문 최우수상, 한울문학 대상, 제31회 동백문학상 외

